



1970년대 당시 두산산업차량BG 공장 모습. 국내 최초로 지게차 생산을 시작한 이곳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 국내 대표 물류업체로 성장시킨 기술 역량의 시작점이다.

## 지게차 外 렌탈·물류 등 확장 2022년까지 매출 1.5조 목표

### 두산산업차량 창립 50주년

국내 대표 물류장비 업체 ㈜두산 산업차량BG(이하 두산산업차량)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두산산업차량은 4차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사업영역을 렌탈, 서비스, 물류 등으로 확장해 2022년까지 매출을 1조5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두산산업차량은 지난 13일 인천 동구 사업장에서 동현수(수)두산 부회장, 박상철 산업차량BG장 등 임직원과 주요 딜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1968년 지게차를 국내 첫 생산한 두산산업차량은 지게차 생산 및 연구개발에 주력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물류 장비 업체로 성장했다. 1979년에는 전동 지게차를 국내 최초로 생산했다. 이후 미국과 영국,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과 독일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홍보물 상영으로 시작한 기념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 및 무인지게차 등 향후 변화될 생산 공장의 모습을 시연했다.

특히 협력사와 고객에 대한 정보를 QR 코드로 통합 관리해 품질 관리에서부터 서비스까지 디지털 정보로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제조실현시스템(MES)과 무인지게차가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리

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지게차 BS7 시리즈도 처음 공개했다. BS7 시리즈는 납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 지게차에 비해 충전 시간이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사용시간과 수명은 2~3배 늘린 것이 특징이다. 또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뿐 아니라 영하 40℃의 저온 환경에서도 생산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간단하며 친환경적이다.

이와 함께 지게차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링크(Lin-Q)’를 선보이고, 하반기 중 출시할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모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두산산업차량이 자체 개발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Lin-Q는 장비 개선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준다. 스마트모드 애플리케이션은 AI 기반 머신러닝으로 장비의 엔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장 특성에 적합한 엔진 출력으로 자동 변경해주는 기능이다.

현재 두산산업차량은 전세계 93개국에서 400여개 딜러망을 통해 40여종 140여모델의 지게차를 판매하고 있다. 2015년 영국 지게차 렌탈업체 리시리프트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에 제품 판매뿐 아니라 렌탈, 서비스, 물류 등 관련 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하는 팩토리스토어를 설립하는 등 유럽 및 북미시장에서의 다운스트림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매출은 약 8000억원으로,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2022년에는 매출 1조5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 LG 올레드TV, 올해의 최고 TV 선정

### 美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 만점

LG전자는 미국 USA투데이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에서 LG 올레드 TV에 대해 올해의 최고 TV로 평가하며 10점 만점을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매체는 LG 올레드 TV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TV 평가 1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지털 트렌드는 LG 올레드 TV에 대해 10점 만점 기준 9점을 부여했다. 음성인식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기술의 미래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LG 올레드 TV는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싱큐(DeepThinQ)’를 기반으로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인공지능 맞춤형 검색부터 인공지능 TV 제어, 인공지능 영상·사운드 모드 조정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우수성으로 인해 네덜란드 콘수멘트기즈가 선정한 55인치와 65인치 TV 평가에서도 각각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의 유력 소비자잡지 ‘위치?’의 TV 평가에서는 1위부터 4위를 휩쓸었다. 이 밖에



고객이 LG 올레드 TV의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콘텐츠를 검색하고 있다. /LG전자

▲프랑스 크 슈아지르 ▲스페인 오씨유 ▲스웨덴 라드 앤론 ▲이탈리아 알트로 콘슈모등 유럽 주요 소비자잡지들도 자체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LG 올레드 TV를 1위로 꼽았다.

유럽 매체들은 LG 올레드 TV에 대해 탁월한 화질은 물론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해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돌비 애트모스는 화면상의 사물의 움직임이나 위치에 따라 소리가 사용자의 앞이나 뒤, 위에서 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입체음향 시스템이다.

/안병도 기자

## 효성 인적분할 후 재상장... 기업가치 얼마나 될까

# “그룹 콘트롤타워” 시총 6조 예상

지주사 체제 올해 안에 마무리  
홀딩스 유상증자로 지배 강화

효성이 증시에 재상장되면서 각 사의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섰다. 이번 재상장으로 인해 효성의 기업가치는 6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3일 사업부문별 독자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을 단행, 재상장을 진행했다. 지주사 체제는 올해 안에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효성은 지난달 1일 효성을 존속 법인으로 두고 인적분할을 통해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 등 4개 회사를 신설했다.

이번 재상장을 통해 효성은 그룹의 콘트롤타워로서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에 본격 나서게 된다. 또 연내 효성홀딩스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효성티앤씨는 섬유 부분과 무역 부분



서울시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효성

사업에서 크레오라와 스판텍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에 집중하고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세계 45%의 시정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타이어코드를 비롯한 타이어보강재사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동차 등 소재 일관화 사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 나선다. 주요 국가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전력 및 도시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시장이다.

효성화학은 고부가가치 파이프용 PP 시장을 넓히고 베트남에 PDH 설비 착공

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재상장을 통한 효성의 시가총액도 관심을 끈다. 신영증권은 거래 정지일 기준 4조7000억원대인 효성의 시가총액이 재상장 후 총 5조8000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영증권의 이지연 연구원은 “세계 1위 제품인 스판텍스와 타이어코드 등을 보유한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는 재거래시 재평가로 상승이 유력하다”며 “지주회사인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코스피 200에 편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확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효성이 1998년 외환위기로 주력 4개 회사를 합병한 이후 다시 분사하는 것을 감안, 사업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효성의 주력사업으로 떠오른 베트남 등 해외법인의 회계분리 등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개별 법인의 주력사업 전망으로 상장 초기 추가 방향성을 가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삼성전자, 3.5GHz 대역 5G 장비 첫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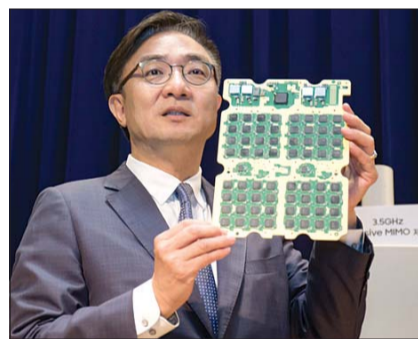
“최고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 자신”  
국제 표준 기반 제품 중 가장 작아

삼성전자가 3.5GHz 대역 5G 통신장비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5G 상용화 일정에 맞춰 국내 이통사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은 13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직접 3.5GHz 대역 5G 기지국 장비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기 사업부장은 “3.5GHz 대역에서도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제품으로 우리 시장에 적기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800MHz의 광대역을 10Gbps 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28GHz 고주파 기술이 진정한 5G”라며 “대역폭이 800MHz에서 100MHz로 줄고, 안테나 수도 1024개에서 64개로 줄어드는 3.5GHz 대역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5G 주파수 대역은 크게 3.5GHz와 28GHz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은 13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3.5GHz 대역 5G 기지국 장비를 소개했다. /뉴스1

로 나뉘어 있다. 저주파수 대역인 3.5GHz는 고주파 대역보다 데이터 전송량이 적은 대신 전파 도달거리가 길고 전송 속도가 빠르다. 고주파 대역인 28GHz는 전파 도달거리가 비교적 짧은 대신 대역폭이 넓어 대용량 데이터 전송량이 많다.

화웨이는 3.5GHz에 집중했지만 삼성전자는 28GHz 대역을 중심으로 장비를 구축해왔다. 때문에 업계는 삼성전자가 적기에 3.5GHz 장비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 화웨이의 장비 기술력은 삼성전자 등 경쟁사보다 1분기 이상

앞서면서 가격은 20~3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김영기 사장은 이런 삼성과 화웨이의 기술력 차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화웨이보다 늦은 게 아니라) 어느 회사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시장에서 가장 좋은 5G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기에 “홀 시큐리티 회사를 고를 때도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이 신뢰도”라며 “한국 산업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회사가 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이라고 언급했다. 보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앞선다는 의미다.

이날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된 5G 장비는 지난해 말 완료된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 국제표준 기반 제품 중 가장 작은 크기로 알려져 있다. 12월 1일 5G 주파수 송출 시작과 내년 3월 상용화 계획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완성단계에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최적화가 완료되는 대로 양산해 이동통신 사업자에 공급될 예정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LG전자 ‘제1회 어린이 환경그림 공모전’

‘환경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 주제  
지난 5월 초 6700여점 작품 접수

LG전자가 ‘제1회 LG전자 어린이 환경그림 공모전’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목적이다.

LG전자는 14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1회 LG전자 어린이 환경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5월 초에 시작한 공모전에는 약 670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이다. LG전자는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기술과 접목시켜



LG전자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위치한 LG트윈타워에서 ‘제1회 LG전자 어린이 환경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어린이들이 시상식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LG전자는 최고 으뜸상 2명에게 각각

환경부장관상과 LG전자 대표이사상을 수여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